

### 서울시 9급 총평

영역	문항 번호	내용	난이도
음운론 (1문항)	1번	음운의 개념과 종류	하
형태론 (4문항)	8번	'르'불규칙, 또는 '으'탈락 - 한글맞춤법과 연결	중
	9번	한자어 구성방식과 어근, 접사 구분	상
	11번	형태소 개수	중
	12번	불규칙용언 찾기	하
문장론 (1문항)	2번	올바른 문장 찾기	중
어휘론 (3문항)	3번	속담과 한자성어 연결	상
	15번	문학과 한자성어 연결	상
	16번	고유어 의미 '안다미로'	중
어문규정 (3문항)	4번	복수표준어 찾기	중
	5번	로마자표기	하
	10번	띄어쓰기	상
문학 (5문항)	6번	고대가요, <공무도하가>	하
	7번	시조 두 수 의미, 주제, 화자의 태도	중
	13번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시조	하
	14번	윤선도, <어부사시사>시조	하
	18번	현대시, 정지용<유리창>	하
국어사 (1문항)	17번	훈민정음언해	중
비문학 (2문항)	19번	문장배열하기	중
	20번	내용전개방식 "예시"찾기	중

시험 치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시험을 보고 오신 수험생분들이 국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문법**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태론**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음이 어려운 낯선 한자성어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 총 5문항 중 4문제가 고전문학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된 고전문학은 모두 필수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기본문학수업'과 '더보기 문학특강', '알집 모의고사'**에서 이미 충분히 다룬 작품들이라 우리 수강생들은 문학은 쉽게 접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맞추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기존의 문학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시며 6월(서울시)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문학이 어려웠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문학을 등한시 하셨다면, 반드시 문학 작품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전문학이 약한 수강생들은

**3-4월 기본 고전문학**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학에서 7급은 문학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으나 9급에서는 **문학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6월 대비 서울시 문제**에서는 문학사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큼니다. 반드시 문학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대비 벼락치기 특강(2018), 또는 서울시 대비 특강(2018), 알집모의고사(2019)를 통해 반드시 문학사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전해지길!)**

**어문규정 문제**에서 '로마자표기' 문제는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 쉽게 출제되었고, '복수 표준어'찾기는 다른 선택지가 어려웠으나, 답에 해당되는 '고깃간, 푸줏간'은 다수 출제되어 답은 정확히 찾으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항상, 표준어 찾기 문제가 출제되므로 6월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반드시 표준어 문제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다르게 **비문학**의 비중의 상대적으로 작았고,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순서배열 문제는 문장론에서 문장의 개념을 정리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국가직을 대비하시니, 비문학은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3월에 진행되는 동형모의고사에서 부교재로 모의고사 16회분이 제공되니 꼭! 모의고사를 통해 전체영역을 실전처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신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의 시험을 힘차게 대비하실 바랍니다.**

**4월과 6월을 준비하시며 약점을 채우시고, 강점은 더욱더 강점으로 만들어 국어에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응원합니다!! ^^**

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 해설

→ 음운의 개념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업시간에 음운의 개념, 음운의 종류를 늘 암기했으므로 아주 쉽게 접근했을 문제입니다.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음운의 종류에는 분절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다. ①에서 말하는 분절되지 않은 음운이란 비분절 음운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강약, 고저, 길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분절음운 또한 의미 변별을 하므로 음운에 해당한다.

② 음운은 최소대립쌍을 통해 구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 방’에서 ‘ㄱ, ㅂ’에 최소 대립쌍, ‘강, 공’에서는 ‘ㄱ, ㄱ’가 최소대립쌍이다. 이를 통해 음운 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

③, ④ 음운은 실제 들리는 음성적인 특징이 아닌, 머리에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실질적으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 ① 금용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 해설

→ 올바른 문장 찾기 문제입니다. 시험 직전 연습을 했으므로, 긴장하지 않고 해결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잘못된 문장을 찾을 때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금용당국은’ ‘내다보면서’, ‘예측하였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고, 안은 문장의 ‘내년 금리가’, ‘더 오를’의 호응도 적절하다.

② 문장성분의 호응이 적절치 않으므로, ‘작성 내용을 정정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처리 됩니다.’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③ ‘보여 집니다’은 이중피동이므로 ‘보입니다’로 수정한다.

④는 어색한 문장이므로,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로 수정한다.

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唇亡齒寒)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氷)
- ④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 해설

→ 한자성어를 손에 놓으면 아니 되십시오. 늘 강조합니다. 한자성어!!

③ 夏蟲疑氷(하충의빙) -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見識)이 좁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로 쓰인다. 그러므로 ‘우물 안 개구리’와 연결할 수 있다.

① 唇亡齒寒(순망치한)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와 관계가 없다.

② 夏爐冬扇(하로동선) -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격(格)이나 철에 맞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물 안 개구리”와 연결할 수 없다.

④ 雪中松柏(설중송백) -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속에서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다. 節操(절조)가 굳음. 매우 지조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굵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체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④도 적절하지 않다.

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① 가는허리 / 잔허리
- ② 고깃간 / 정육간
-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 해설

→ 복수표준어 찾기 문제입니다. ‘고깃간/ 푸줏간’은 기본이론반부터 많이, 여러 번 암기한 내용이라 틀리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② ‘정육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깃간’과 ‘푸줏간’이 복수표준어로 사용된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한 설명이다. 또한 ‘고깃간, 푸줏간’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국가직, 지방직에서 자주 출제되는 예문이므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나머지 예들은 모두 복수표준어로 적절하다.

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오죽헌 Ojukheon
-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 ㄷ. 선릉 Sunneung
- ㄹ. 합덕 Hapdeok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해설

여러 차례 연습한 로마자 표기 예문들입니다. 기본이론반에서부터 문 → 풀반까지 여러 번 반복한 문제들이어서 기본 종제 답을 찾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ㄱ. 오죽헌(문제 해결방법: 체언에서는 거센소리되기를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h'를 빠르게 확인하는 문제): **Ojukheon**
- ㄴ. 김복남(문제 해결방법: 인명에서는 음운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기대로 로마자 표기 확인하는 문제): **Kim Bok-nam** 이름 사이에 붙임표는 사용할 수 있다. 성과 이름순으로 쓰되, 성과 이름 사이는 띄어 쓴다.
- ㄷ. 선릉(문제 해결방법:로마자 표기는 표준발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유음화가 일어나 [설릉]으로 발음하고, '르'은 'l'표기하므로, 'l'을 빠르게 확인하면 된다): **Seolleung**
- ㄹ. 합덕(문제 해결방법: 포인트는 'h, d'으로 모음앞에서 'h'과 'd'은 'b, d'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p, t'로 표기했는지의 확인 문제): **Hapdeok**

그러므로 적절한 것은 ㄴ, ㄹ로 ③이 된다.

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公無渡河
- 公竟渡河
- 墮河而死
- 當奈何

-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진한다.
-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해설

고대가요 <공무도하가>는 공부한 문학 작품이며, 이미 국가직에서 <구지가>가 한자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공무도하가>, <황조가> 작품을 한자를 보고 판단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더보기 문학특강+기본문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본 종제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① <황조가>와 <공무도하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시이다.
- ② 4언 4구체로 한문으로 진한다.
- ③ '물'의 상징적 의미(사랑, 이별, 죽음)으로 시상이 전개되므로 답은 ③이 적절하다.
- ④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로 시작하며,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과 그 '한'에 대해 노래하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충성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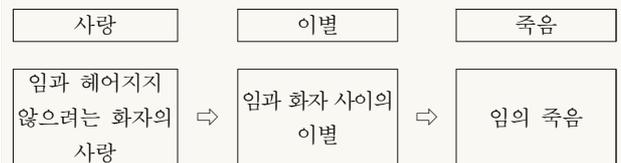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갈래 : 고대가요, 4언 4구체 한역시가, 서정시
- 성격 :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 주제 : 임을 여윈 슬픔
- 표현 : 직서적, 탄식과 원망의 목소리
- 별칭 : 곡명은 '공후인(箜篒引)'
- 의의

- 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 가요임
- ② 원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임.
- ③ 전통적 정서인 한(恨)을 바탕으로 함.

- 연대 : 고조선
- 출전 : 해동역사
- 포인트

① 시상 전개에 따른 '물'의 이미지의 변화 과정



②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한'을 노래한 작품의 계보 :

고대가요 '공무도하가' - 백제가요 '정읍사' - 고려가요 '가시리, 서경별곡' - 한시 '송인' - 황진이 시조 - 현대시 '진달래꽃(김소월)'

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임 그린 상사몽이 ㉠실술의 녀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나)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 녀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 ② (가),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 ④ (가), (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 해설

**고전 작품에서 '실술'이 나오면 '귀뚜라미, 감정이입'이라고 강조한 → 내용을 기억하시겠쇼? '접동새, 귀촉도'는 "한"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① 실술(蟋蟀)은 귀뚜라미의 한자어이다.  
 ② 고전문학이 어렵다 판단이 들 때,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 하는 노래'일 경우가 많다.  
 ③ '접동새'와 '귀촉도'는 전통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또 다른 말로는 '두견, 두견새'가 있다.  
 ④ (가)는 박효관의 시조이다.

(가) 박효관, <임 그린 상사몽(相思夢)>  
 • 갈래 : 평시조  
 • 성격 : 연정가(戀情歌)  
 • 제재 : 임, 실술  
 • 주제 :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 표현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작가 : 박효관(? ~ ?). 호는 운애(雲崖). 철종·고종 때의 객으로, 제자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歌曲源流)》라는 시조집을 편찬하고, '승평계'라는 가단을 조직하였다. 시조 13수가 전해지고 있다.

(나) 작자미상, <이 몸이 죽어져서~>  
 • 갈래 : 평시조  
 • 성격 : 연정가(戀情歌)  
 • 제재 : 임, 접동새  
 • 주제 : 죽어서도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과 임에 대한 그리움

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론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 해설

→ **용언의 활용형으로 올바른 맞춤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 ① '가팔르다'+-아서→가팔라서
- ② '모자르다'+-아서→모자라서
- ③ '불사르다'+-아서→불살라서
- ④ '올바르다'+-아서→올발라서

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 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 해설

→ **한자어의 구성방식에 대해 본고 있는 문제입니다.**

② '인간'은 '어근+어근'의 구성이다. 그러나 '韓國人(한국인)'의 '인'은 '사람'의 의미가 있는 접미사이다. 이러한 쓰임으로는, '원시인/종교인/한국인/감시인/그리스인/프랑스인'이 있다.

- ① 延長(연장) '늘일 연, 길 장' - '길게 늘이다'  
 下山(하산) '아래 하, 뫄 산' - '산에서 내려 오다'  
 →그러므로 '서술어+ 부사어'의 구조는 적절한 설명이다.
- ③ 友情(우정) '친구의 정'의 의미로 비자립적 어근 '우' + 단어(정)의 구성이다. 마찬가지로 大門(대문)은 '큰 문'의 의미로 비자립적 어근(대)와 단어(문)의 결합이다.
- ④ 고유어의 반복합성어는 주로 '구석구석, 하루하루, 짱충짱충, 풍당풍당'과 같이, 명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결합하거나, '어둑어둑, 파릇파릇'과 같이 어근끼리 결합한다. 그러나 '시시각각'은 '각각의 시각'으로 해석하므로 고유어의 구성방식과 다르다는 선택지는 적절하다.



14. <보기>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숲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國總 至지국國總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쉼노는다.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蕩약笠笠은 씨 잇노라, 綠綠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국國總 至지국國總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 해설

**<어부사시사>는 서울시 대비 문학특강에서 작품 전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기본 문학 수업에서도 정리하셨습니다. 의무시겠는걸요??**

- ①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노래하는 것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우는 것이 벽구기인가(청각), ‘지국총지국총어사와(찌뜨덩찌뜨덩어영차)’의 노젓는 소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③ 대구법은 초장에서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숲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 ④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40수의 연시조이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연대 : 조선 효종 4년(1453)이후
- 제재 : 어촌의 자연과 어부의 삶
- 주제 :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
- 특징
  - ① 대구법과 은유법, 반복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함.
  - ② 여음을 배치하여 작품의 흥을 돋우고 내용에 사실감을 더함.
  - ③ 시간의 흐름(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출전 : <고산유고(孤山遺稿)>
- 작가 : 윤선도(尹善道, 1578~1671).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해옹(海翁).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음. 송강 정철과 더불어 시조 문학의 대가로 꼽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자연을 시로써 승화 시켰음. 문집 <고산유고>에 시조 77수와 한시문 외에 2책의 가첩(歌帖)이 전함.

15.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섰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歷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① 髀肉之嘆
- ② 招搖過市
- ③ 不識泰山
- ④ 麥秀之嘆

✓ 해설

→ 시조의 해석과 한자성어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 김천택, <섰 실은 천리마~>

- 성격: 우의적, 간접적
- 주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과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

초장에서 자신을 뿔나무를 실은 천리마에 비유하여 능력은 뛰어난데 포교로 다녔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중장에서 십년동안 마구간에 갇혀있듯이 하찮은 일에 매달려 청춘을 보냈다고 했다. 종장에서 재능도 없으면서 우줄거리의 양반들을 살찌고 둔한 말이라 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 우화적 수법이다.

그러므로

- ① 비육지탄(髀肉之嘆):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 ② 초요과시(招搖過市): 남의 이목(耳目)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하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으로, 허풍(虛風)을 떨며 요란(搖亂)하게 사람의 이목(耳目)을 끄는 것을 비유하는 말.
  - ③ 불식태산(不識泰山): '태산(泰山)을 모른다'는 뜻으로, 큰 인물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말함.
- 모두 관련이 있으나,  
 ④ 麥秀之嘆(맥수지탄)은 고국의 멸망과 관련되므로 찾을 수 없다.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다

✓ 해설

어휘의 뜻풀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안다미로’는 ‘기본이론반’, → ‘암기의 비밀’ 고유어 암기 때 함께 정리한 문제이며, 기출 문제로도 여러분이 보신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 ③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④ 툇아보다: 살살이 툇아 나가면서 살피다.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라 말쌈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썸 이런 전츄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므츄내 제 ㅼ들 시러 퍼디 몬흥 노미 하나라 내 이를 爲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字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ㅼ매 便安키 호고져 흥 ㅼ르미니라

-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ㅅ'와 'ㅈ'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 해설

→ '훈민정음언해'는 시간을 들여 기본이론반에서 자세히 본 문헌입니다. 아마 모두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나라 말쌈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썸 이런 전츄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므츄내 제 ㅼ들 시러 퍼디 몬흥 노미 하나라  
 내 이를 爲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字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ㅼ매 便安키 호고져 흥 ㅼ르미니라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세종대왕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③ 세종대왕 자신을 의미하는 '내'의 설명은 적절하다.
- ① 복잡하고 긴 문장이 크게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시러'는 능히(능력이 있어서 쉽게)의 의미이다. 載(실을 재)의 '신다'의 의미가 아니다.
- ④ 'ㅈ'은 'ㅅ'와 'ㅉ'의 중간발음으로 지금은 그 음이 남아있지 않으나, 중세 때에는 발음을 구별하였다.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사새처럼 날아갔구나!

- ① 차고 슬픈 것
- ② 새까만 밤
- ③ 물먹은 별
- ④ 너

✓ 해설

→ 기본이론부터 문제풀이, 알집모의고사 등 모든 수업 때 다룬 정지용, <유리창>이라는 작품입니다. 무조건 이걸 정답이겠지요?

※ 정지용, <유리창 1>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회화적, 감각적  
 • 제재 : 어린 자식의 죽음  
 • 주제 :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 특징  
 ①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함.  
 ②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함.  
 ③ 모순 어법을 구사하여 시의 함축성을 높임.  
 • 출전 : <조선지광>(1930)

'차고 슬픈 것, 물먹은 별, 너'는 모두 죽은 자식을 의미하는 시어들이다. 그러나 ②의 '새까만 밤'은 시간적 배경을 의미한다.

